

족쇄풀린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

◇기획...부활하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진단한다

군국주의 일본의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군사력에도 만족치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방위예산, 자위대 해외파병, 교과서 왜곡, 고개를 드는 우파 군국세력 등은 우리를 전율케 하고 있다.

그럼 과연 일본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력을 무기삼아 정치군사강국으로 떠오를 것인가.

1. 일본 군사력, 세계 3위 수준

최근 일본에서는 보수 우익진영의 목소리가 급속히 거세지고 있다. 패전 직후 찬사리를 맞은 후 그간 맥 못쥔 이들은 비무장평화론을 제치고 주류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일본의 급속한 재군비화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먼저 방위예산의 추이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90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4조3천5백93억엔이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미·소에 이은 세계 3위이고, 이를 나토방식으로 환산했을 때 88년 기준으로 남한의 5배, 남북간을 합친 것의 3.5배 이상의 군사비 수준이다.

자위대의 병력 구성도 주목된다. 자위대의 병력수는 최근까지 약 24만 6천명 수준에 머물러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겉보기일 뿐 자위대는 가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간부가 사병보다 많은 역파라미드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최말단 병사에게도 하사관 훈련을 시켜두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사시 일본은 언제든 징병만 실시하면 기존병사는 분대장이 되어 일시에 약 2백50만 군대를 편성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밖에 최근 해상방위선을 종전의 200해리에서 1,000해리로 대폭 늘린 것, 8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RIMPAC, PACEX 등의 공동훈련에서 일본의 참여도가 날이 닳게 높아지는 것, SDI 계획에 참여할 정도로 세계정상급을 자랑하는 하이테크 무기개발 기술 등 이것들은 일본의 재무장화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II. 미국 영향력 벗어나는 일본의 안보체제

그럼 과연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지역의 터득대감적인 미국이 일본의 '대국화'를 극력 경계하고 있고, 아직까지 일본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물음에 답하기

일본의 대두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III. 분단상태 한반도 원하는 일본

작년 이후 일본이 정치군사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길을 가름하는 시련대로 떠오른 것이 바로 미-일 수교 협상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은 말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현상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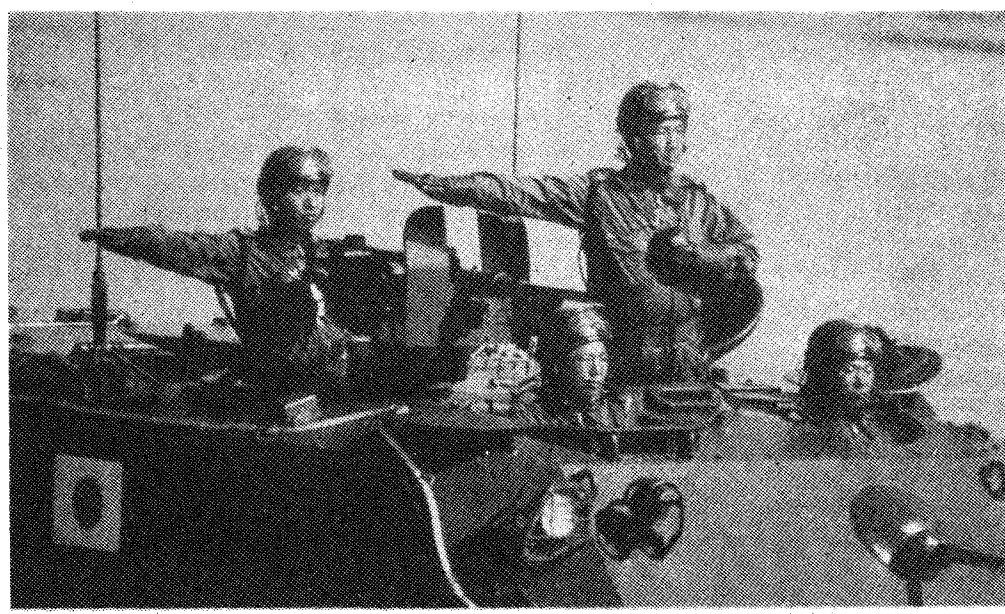
유리한 고지이기도 하다. 먼저 북-일 수교가 이뤄지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운신의 폭은 몰라보게 넓어진다.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미·소·중과도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놓고 한판 겨룰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에따른 경제적인 이득도 만만치 않다. 양국 수교가 이뤄지면 일본은 최근 유망 지역으로 각광받는 동북아경제권의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IV. 되살아나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이 꿈틀거리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군사력은 비약적인 증강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군사력의 뒷받침없이 정치대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일본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일본이 아시아에 있어서 미군사력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조만간 적어도 아·태 지역에서는 군사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적 강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일본의 군사력의 추구는 이미 자연스레 한반도로 맞춰지고 있다. 그 교두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 놀라운 정도로 진척돼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이 삼각동맹 속에서 양국관계는 최근 RIMPAC훈련 공동참가, 양국 군사간부 교환 교육·교향방문, 군수처차원의 군사회담, 양국 군함의 교환 기항 등을 비롯, 나아가 미국을 축으로한 동맹지위체제의 모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8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RIMPAC, PACEX 등의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머지 않아 아시아에서 미군사력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적 역할을 추구할 것이 예상된다. 위 사진은 자위대 사열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의 우려는 한층 현실적인 것이 된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중추성 심화가 바로 그것이다. 군사적으로 일본의 독자성 강화는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한을 동맹한 파트너가 아니라 중추 내지는 의존적 파트너로 간주하려

는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 양국 군사관계 강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일본에 의한 군사적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술한 아픔과 상처를 안겨줬던 '대동아공영권'은 이제 먼 옛날의 일 만이 아니다. 오늘 일본은 경제강국에 만족치 않고

군사강국으로의 행진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더이상 미국에만 한정될 수 없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진지하고 주의깊은 관심과 경각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일본은 지역적 강국에만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려란 것을 예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미 불을 당기고 있는 일본의 군비증강을 고삐풀린 망아지 모양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을 것이다.

최 순 일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한반도 분단고착화 전제로한 북-일 수교·경제 원조 협상 경제력 바탕으로 정치대국화 위한 군사력 증강에 골몰

위해서는 먼저 미-일안보체제의 틀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일 안보체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일본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는 점이다. 자국중심의 안보체제를 꾸려가기에는 힘이 부친 미국이 일본에게 부담을 줄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군사대국으로 떠오를 기회를 호사탐탐 노리는 일본에게 내심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방위비지출 증가를 통한 아·태지역에서의 해상항로의 안전확보역할 대행, 주일미군 방위비증대 등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이라크와의 전쟁에서와 같이 막대한 분담금의 부담, 그리고 자위대 파병까지도 맡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중간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당분간 미일관계는 내면적으로는 균열점을 내재하면서도 이해관계에서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공조체제를 갖추는 긴장된 동맹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일본은 여기서 미국과 과중한 군비부담을 나눠 가지며(역할부담), 외교권을 강화하며(북방영토 한반도 문제 등), 지역분쟁의 해결(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참여할 것이다. 이는 곧 그리 멀지 않은 시일안에 일본의 독자적인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국가로서

정책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어느쪽이든 현재적 약화태세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이 일본국익에 절대로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경계해왔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다. 작년 11월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의 지도자 10위안에 꼽기도 한바 있는 저명한 평론가 다케무라 겐이치(竹村健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서슴치 않았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의 고정은 일본의 최선의 국가이익과 일치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일본은 북한에 경제적·외교적 원조를하여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도록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망언이 일본안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발언은 최근의 시국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일 뿐이다. 결국 여기서도 치부의 일면을 드러내듯이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일제때 상투적으로 즐겨 써 먹었던 분할과 지배의 정책을 축으로 삼아, 한반도의 분단을 노리는 검은 속셈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이와함께 북-일 수교는 일본이 정치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오 세 윤
(본보 취재부장)

요즘을 일간지의 사회면을 보면 부쩍 마약, 범죄 등 흉악한 사건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도덕성이 혼란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정서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노신은 그의 산문집에서 "폭군지배의 신민은 대개 포악하게 변하며 이러한 현상은 그 나라의 쇠퇴기를 반영한다. 또한 신민의 포악성이 가속화될수록 그 나라의 쇠퇴속도도 비례적으로 빨라진다"고 말했다.

한 예로 고대 로마에서는 거대한 광장에 사람들이 운집하여 바로 그 앞에서 사자에게 사람을 먹이로 주고 그 광경을 즐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행해졌다는 것은 이 말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도 로마의 시민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

민중의 분노는 쌓여가고 있다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약, 인신매매, 강도, 강간 등 국민대중을 위협하는 범죄의 행각들이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횡포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들을 증명이라도 하듯 법정에서는 사형선고로 인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여 사회에 불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신이 예언했던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강경대일사의 죽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군대에서의 의문사, 노동자들에게 대한 탄압 등 현 정부가 자신들의 폭력성을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은 이에 호응하듯 하듯 갈수록 폭력적이고 삭막하게 변하는 것이다.

이 사실과는 아랑곳 없이 정부와 언론들은 계속적으로 파소비추방정제인, 범죄전쟁선포,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외 무역수지의 적자에 따른 대국

민 각성전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것들은 민중의 뜻과 요구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을 시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정부에 되돌아올 뿐이다.

우리는 이상과같은 현상들 속에서 현정부가 민중이 원하는, 진정한 민중들의 정부가 되지않는 한 국민들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며 우리의 사회 또한 더욱 살기 힘든 사회가 될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최근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들과 더불어 소련민중들의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보고 있다.

소련의 민중결기는 권력층이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 실행하지 못했기에 나타날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민중의 분노였다.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주위 환경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강간, 폭력 등 추잡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질권'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분노를 억

누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일치는 바로 정부당국이 쥐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민중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자들도 줄어들 것이며 사회문제도 축소될 것이다.

폭력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이 전제가 되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중의 한 형태라고 한다.

착취받는 노동자들의 자본가에 대한 분노, 학생운동을 하다가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죽음을 당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분노 등 이러한 분노들이 우리들의 사회에는 아직도 자꾸만 쌓여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분노를 달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의 가시적인 전사행정들만을 일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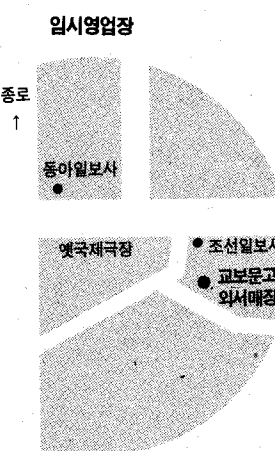
민족민주운동전선에서는 92.93년을 대결투기이며 민주화로 가는 노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설정한다. 사회에 계속적으로 분노가 쌓이고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모아 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정부의 대국민 탄압을 철폐시키는 날, 우리 사회는 진정한 정통력과 범죄가 난무하지 않는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노에 포위된 정치모리배

가을학기 원서교재·각국 수입도서, 역시 교보문고입니다

외서매장 - 장소 옮겨 영업하고 있습니다

- 모든 대학 원서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및 원판 대학교재/각종 컴퓨터 매뉴얼/주요 언어권의 각종 사전
- 세계를 열어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도서 수입공급, 주문대행/ 각종 회화학습용 교재,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 해외 산업·학술 정보자료실이 있습니다.
1991년 6월까지, 지난 1백년간 구미지역의 각종 학위논문 및 특수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검색, 제공해드립니다.
- 국내 도서도 주문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통신판매 (Tel : 712-5788, 720-6103)
납품상당실 (Tel : 735-6153)
- 문화행사 예매권/외국어판 한국안내서/ 정부간행물/국내의 주요 잡지·사진류도 취급합니다.



임시영업장: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2 (충무빌딩)
전화: 739-4328, 4329 태화교재 736-1445
정부간행물 739-4310

교보문고

해외산업정보자료실 720-3357

고려씨엠생명 —

고려증권과 17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CMI (Clerical Medical International) 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생명보험 전문회사로서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서로 돕는 사회 구현'이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공고

- ###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자격
영업직 (능력 우수자는 관리자로 발탁)	○○명	1. 4년제 정규대졸 (예정) 남자 2. 만 24세 이상의 군필 또는 면제자
- ### 2.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증명사진 4매
 - 졸업 (예정) 증명서 1부
- ### 3.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및 인성검사
- ### 4. 제출기간 및 접수처

 - 기간: 1991년 9월 2일 (월) ~ 9월 7일 (토)
09:00 ~ 18:00 (토요일은 14:00 까지 접수)
 - 장소: 고려씨엠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6-20 (고려증권 4층)
- ###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 6. 기타

 - 이력서 상단에 전화번호 명기할 것.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은 TEL. 338-9123

고려씨엠생명보험

Coryo-CM Life